

# 기업대출 늘린 은행, 경기부진 지속에 건전성 악화 우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42%p ↑  
완전 자본잠식 예상 기업 11.7%  
부동산 PF 등 중심 연체율 상승

은행 건전성 악화 등 금융불안에  
대출 확대보다 부실 방어가 관건

#. 시작은 기업의 대출규모 확대였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달려 빛까지 끌고와 투자를 감행했다. 수출 성장은 더디고, 글로벌 유동성은 고성장하는 미국에 물리는 시기였다. 아슬아슬하게 쌓인 탑은 신용국의 자본유출이 본격화되자 하나 둘씩 무너졌다. 굴지의 대기업은 파산했고, 한국의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탈하기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달러매도에 개입한 정부는 외환보유고로는 한계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1998년 외환위기의 서막이다.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더디자 추가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기업들의 연체율도 동반상승하고 있어 금융기관 부실 등 금융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5.2%로 1년전(121.0%)과 비교해 4.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258%)과 중국(166.5%), 싱가포르(130.6%)에 이어 4위다.

증가폭은 러시아(8.4%p·72.9→81.3%), 사우디아라비아(8.2%p·55.6→63.8%), 중국(7.7%p·155.8→166.5%), 인도(7.0%p·53.7→60.7%)에 이어 5위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 가계대출 보다 심각  
문제는 늘어나는 기업대출 만큼 부실률도 상승하고 있는 것.

지난해 금융업 제외 전체 외부감사 기업 3만6425곳을 조사한 결과 완전자본 잠식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4255사(11.7%) 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부실기업 3854곳에 비해 399곳(10.3%) 늘어난 수준이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쌓이면서 투자했던 금액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으로, 경기회복이 더디지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업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1년전(0.27%)과 비교해 0.14%p 상승했다. 가계대출이 같은 기간 0.24%에서 0.35%로 0.09%p 상승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부실채권(NPL)도 늘었다. KB국민은행은 기업대출 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말 0.26%에서 지난해 말 0.42%로 0.16%p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같은기간 0.24%에서 0.29%로 올랐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말한다.

◆은행 실적, '리스크 관리'가 관건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있는 데다 소비부진이 심화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8일 "기업대출의 경우 금리상승기 이전에 규모가 늘어난 부동산 PF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연체율 상승세를 제약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연체율의 추가적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면 소비부진이 지속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억제규제에 따라 올해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며 반사효과로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연초부터 회사채 시장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늘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올해 실적은 대출 성장보다 연체율 등 부실을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보험 브리핑

### 삼성화재 운전 훈수자격 시험장 새 브랜드 캠페인 진행

삼성화재가 신규 브랜드 캠페인을 공개한다.

◆프로모션 '운전 훈수자격시험장' 오픈

삼성화재는 2024년 출시한 신규 광고 '보이는 보험'과 연계해 자동차보험을 소재로 한 '삼성화재 운전 훈수자격시험장'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 보조석에 앉으면 운전자에게 훈수를 두고 싶어지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해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컨셉으로 진행한다. 응시원서를 접수해 문제를 풀면 결과에 따라 다섯 가지 레벨로 나누어진 자격증을 부여 받는다.

메인 콘텐츠인 '운전 훈수자격시험'은 총 8문제로 구성했다.

### 교보생명

### 국내 보험업계 최초 카톡 고객지원 서비스

교보생명이 모바일 메신저 기반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카톡'으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 '교보톡톡'

교보생명은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모바일 메신저 기반 고객지원시스템인 '교보톡톡'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교보톡톡은 기존 고객지원시스템과 카카오톡을 연결해 고객과 컨설턴트가 손쉽게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고객들에게 보험상품 관련 문의부터 상담, 고객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교보톡톡은 고객이 카카오톡 내 '교보생명 컨설턴트' 채널을 추가하고 연결에 동의하면 카카오톡으로 담당 컨설턴트와 자동으로 연결한다.

### KB라이프생명

### KB내맘대로 Pick! 온라인 전용 건강보험

KB라이프생명이 새로운 건강보험을 선보인다.

◆온라인 전용 첫 건강보험 출시

KB라이프생명은 온라인 보험 상품 'KB내맘대로 Pick! e-건강보험 무배당(갱신형)'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신상품 가입 이벤트와 보장분석 체험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KB라이프생명의 온라인 채널에서 처음 선보이는 건강보험이다. '고객 맞춤형 디지털 보장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이 가입하는 고객은 최대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 현대카드에 수요 뺏긴 카드사, 애플페이 진입 '눈치'

수요 가능 어렵고 수수료도 부담 커  
장기적으로 모든 카드사 합류 할 듯

현대카드를 제외한 다른 카드사의 애플페이가 합류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소문만 무성하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가 합류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애플페이는 지난해 국내에 상륙했다. 사용 첫날 오전에만 21만명이 등록하면서 흥행을 입증했지만 여전히 사용가능한 카드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하다.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수수료를 소비자보다 부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카드사에 애플페이 서비스를 허용했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접근 문턱을 낮췄지만 정작 카드사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후발주자로서 애플페이가 도입으로 쟁길 수 있는 이익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진출하면서 관련 수요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대카드 외 신규 카드사의 합류는 지지부진하다. /뉴시스

를 대거 확보했다는 것.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대카드에 가입한 개인 신용카드 신규회원은 20만3000명이다. 전업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중 가장 많다. 이어 4~5월에도 각각 16만6000명, 14만5000명을 유치하면서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매달 신규회원 수가 감소세를 기록했고 6월에는 KB국민카드(13만2000명)와 삼성카드(12만6000)에 이어 3위에 그쳤다.

고객의 수수료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운영하면서 애플 및 비자(Visa)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결제금액의 0.46%인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애플페이가 수수료로 발생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1.25%다. 가맹점 수수료 중 36.8%를 애플페이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것.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규 애플페이가 가입자의 수요를 가능하기 어렵고 자칫 수수료 부담만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카드업계에서는 합류 시기가 늦어질 뿐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 서비스에 합류할 것이라 의견이 지배적이다. MZ세대는 물론 '잘과세대'에서 아이폰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금의 10~

20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기 전 미리 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7월 한국갤럽이 진행한 '2023 스마트폰 사용자 & 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18~29세 '아이폰' 이용률은 65%다. 지난 2022년(52%)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신규 카드가사 유입되면 근거리 무선 통신(NFC) 단말기 보급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간 카드업계가 우려했던 결제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지난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영세·중소가맹점에 NFC·QR 단말기를 지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국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확산도 시간문제다"라며 "물론 소비자들 기대하는 만큼 가파른 속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국민銀, 外人 근로자 고객에 전통지갑 증정

KB국민은행은 외국인근로자 출국 만기보험 공항지급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한국전통지갑'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은 공항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출국 후 14일 이내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해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는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및 일반구역 환전소에서 보험금 환전 신청 후 면세구역 환전소에서 외화 현찰로 보험금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로 외국인근로자는 면세구역 환전소에서 보험금 수령 시 한국전통지갑을 함께 증정받아 본국까지 보험금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

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외국인근로자가 본국까지 안전하게 보험금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